

조선 전기 紙料와 配合紙 생산

박 준 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 전기에 있어서 종이 원료와 배합지에 관한 내용을 종이 수요와 연계하여 연구한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종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명에 보내는 진헌지와 서적 간행을 위한 책지의 생산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진헌지는 태종과 세종 연간에 가히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진헌지는 각 지방에 생산량을 나누어서 조달하였으나, 이때 지방에 할당된 종이 수량은 감당할 수 있는 생산량의 한계를 초과할 만큼 과다하였다. 또한 책지는 진헌지보다 더욱 많은 수량의 수요가 있었다. 비록 책지는 상대적으로 종이의 품질이 낮아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수요량은 다른 종이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증가하는 종이 수요에 맞춰 그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종이를 만들었던 백성의 폐해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 조정은 백성의 고충을 해결하면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 중에 하나가 종이 원료의 다양화를 통한 배합지의 생산이었다.

세종은 진헌지를 생산했던 조지소를 통해 다양한 책지 생산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책지를 만드는 종이 원료에 주목하였다. 세종은 이미 1420년대부터 종이 원료의 다양화 방법에 대해 연구하여 대나무 잎, 소나무 잎, 벚꽃 등의 원료로 출판을 시험하였다.

세종시대 다양화된 종이 원료는 1434년 간행한 『자치통감훈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책에는 벚꽃 등의 원료에 닳나무를 5:1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 배합지가 사용되었다. 이후에도 조선 조정은 종이 생산력 확대와 백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종이 원료 다양화 방법을 고민하였다. 1450년대에는 수요가 많았던 책지에 대해서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배합지를 생산하여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배합지 생산은 종이 품질을 극도로 낮춘 세조 연간의 잡초지로 가장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지료(紙料), 배합지(配合紙), 진헌지(進獻紙), 책지(冊紙), 잡초지(雜草紙), 왜지(倭紙), 한지(韓紙), 종이(紙)

*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사 / pjh3755@korea.kr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종이 配合과 倭紙, 雜草紙 |
| II. 종이 수요 증가와 楮貨紙, 進獻紙 | V. 결 론 |
| III. 冊紙 수요와 본격적인 配合紙 생산 | |

I. 서 론

1123년 徐兢의 『高麗圖經』에는 고려에서 사용하던 종이에 대해 짧은 기록이 전하고 있다.

종이는 닥나무만을 쓰지 않고, 간간히 등나무로 만들되, 두드려서 모두 부드럽고 매끈하며, 좋고 낮은 것에 몇 등급이 있다.¹⁾

이 기록은 비록 간단하지만 닥나무나 등나무와 같은 종이 원료, 搗砧 등의 가공 기술, 종이의 등급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중국에서는 宋代까지도 등나무로 만든 종이가 상당히 유명했던 것 같다. 米芾(1051~1107)은 등나무 종이 가 부드럽고 보푸라기가 없어서 천하제일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등나무는 생장 속도가 느리고, 더딘 생장으로 인한 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확대되는 종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唐代 중엽 이후로는 보편적인 紙料로서의 역할을 대나무가 대신하였다.²⁾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도 『고려도경』의 기록을 통해 고려 시대 종이 원료 중에는 일부 등나무가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미불의 평가에서처럼 종이 품질은 매우 좋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도 奈良 時代에는 詔書나 佛經에 麻紙를 사용했고, 중세 이후에는 닥을 원료로 하는 楮紙가 주류였음에도 雁皮를 원료로 하는 斐紙, 三檉를 원료로 하는 檉紙 등이 사용되었다.³⁾

이처럼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諸國에서는 다양한 紙料가 사용되었는데, 특정 종이의 품질, 문화적 역량 등과 관계 되는 종이 수요, 원료와 기술에 바탕 하는 생산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료가 결정될 수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이처럼 製紙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료의 종류가 폭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한다면, 사회 변화상과 연계된 종이 생산 양상을 보다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 漢代의 초기 종이는 선물용 포장지 역할에서 시작하였지만, 그것이 의사소통을 위한 文字와 결합되는 순간부터 인류의 모든 지적 문화 전통은

1) 『高麗圖經』 第23, 土産, “紙不全用楮, 間以藤造, 搗搗皆滑膩, 高下數等.”

2) 錢存訓(저), 김의정·김현용(역), 『중국의 종지와 인쇄의 문화사(中國紙和印刷文化史)』,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110~112쪽.

3) 富田正弘, 「中世文書の料紙形態の歴史的變遷を考ふる」, 『歷博』 184, 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14, 16~17쪽.

종이로 만든 책에 의해 기초가 세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종이의 역할이 급속하게 디지털 매체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매체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상을 보다 합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단초도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紙料 다양화의 시각에서 조선 전기 문화 역량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 시대의 종이 생산 방식은 조선 개국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을 것인데, 새 왕조의 개창과 함께 世宗 시대를 전후하는 시기의 문화 역량은 종이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는 動因을 제공하였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종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요 증가에 맞춰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백성의 폐해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 조정은 백성의 고충 해결과 공급량 증가를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지료의 다양화였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配合紙였다고 할 수 있다.⁴⁾

기존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조선 전기의 종이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써 지료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⁵⁾ 그러나 사실상 종이 수요 증가의 구체적인 양상을 논증한 경우는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상당히 간략한 기술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 전기에 있어서 종이 수요의 폭발적 증가 원인을 외부적으로는 明의 進獻紙 요구와 내부적으로는 冊紙 증가에서 찾고자 하며, 이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응 전략적 측면에서 지료 다양화와 배합지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문헌 기록에 의해 명징적으로 밝힐 수 있는 지료에 대한 실물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과학적 지료 분석의 기초 대상 자료를 예시하고자 한다.

II. 종이 수요 증가와 楮貨紙, 進獻紙

먼저 조선 전기에 있어서 종이 수요의 증가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당시 종이 수요는 크게 楮貨紙, 事大用 進獻紙, 서적 印出用 冊紙, 紙甲 등의 軍需紙, 喪葬의 賻紙 등 다섯 방향으로 정리된다.⁶⁾ 종이의 주요 수요처 중에서 休紙로 만들었던 紙甲이나 왕실이나 관료 등 특권층에 한정하여 50권에서 150권 정도를 차등 지급했던 賻紙는 상대적으로 수요의 많은 몫을 차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楮貨紙, 進獻紙, 冊紙는 기록으로 전하고 있는 공급과 수요의 양상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우선 楮貨紙와 進獻紙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들 종이가 조선 전기의 종이 생산에 미쳤

4) 配合紙는 楮와 기타 紙料를 일정 비율로 配合하여 만든 종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混合紙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混合이라는 용어는 특정 비율 없이 섞는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配合보다는 적당하지 않은 듯하다.

5) 조선 전기 종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논문은 李光麟, 「李朝初期의 製紙業」, 『歷史學報』 10, 역사학회, 1958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鄭善英, 「朝鮮初期 冊紙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1, 한국서지학회, 1986; 柳鐸一, 「15世紀 韓中 造紙技術에 對하여」, 『季刊書誌學報』 2, 한국서지학회, 1990; 吳龍燮, 「倭楮의 傳來와 抄造」, 『書誌學研究』 10, 한국서지학회, 1994; 이정신, 「高麗時代 종이의 생산 실태와 紙所」, 『韓國史學報』 5, 한국사연구회, 1998; 한정수, 「조선전기 제지(製紙) 수공업의 생산 체제」, 『역사와 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1999; 河宗睦, 「제지업」,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2013 등이 있고, 단행본으로는 김삼기, 『조선시대 제지수공업 연구』, 민속원, 2006 등의 연구 성과가 있다.

6) 河宗睦, 앞의 논문, 2013, 296~300쪽.

던 영향을 살펴보겠다.

太宗은 楮貨의 유통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였다. 잠시 유통을 중지하였던 때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는 조정의 강력한 유통 정책으로 조선 전기 일정 기간 동안 상당히 유통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

처음에 저화지는 각 지방에서 만들어 貢納한 종이를 사용하였다. 고려의 紙所나 조선 전기의 都會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지방 分定의 종이 생산 방식을 통해 國用的 종이를 공급받았던 방식대로 저화지 역시 각 지역에서 공납을 통해 확보하였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종이는 製紙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두꺼움과 얇음(厚薄), 고움과 거침(精麤) 등의 차이가 있었다.⁸⁾ 특히 일반 사람들이 厚紙를 선호하면서 후지 생산을 위한 비용 증가와 저화지 納貢에 따른 백성의 폐해가 있었으며,⁹⁾ 같은 저화라도 후지로 만든 저화만을 선호할 경우 상대적으로 화폐 유통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 조선 조정은 종이의 후박으로부터 비롯된 저화 유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415년 造紙所를 설치하여 楮貨用 종이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기에 이른다.¹¹⁾

조지소 설치 이후 통일된 저화의 생산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불필요하게 크기가 컸던 조선의 저화는 생산뿐만 아니라 사용에도 불편함이 있었다.

본국의 楮貨는 길이와 넓이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 紙筭(종이)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中朝의 체제에 따라 板을 만들어 인쇄하게 하십시오.¹²⁾

그래서 조선 조정은 1417년에 제정된 明의 寶鈔¹³⁾를 기준으로 크기를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기존의 舊楮貨는 보초에 크기를 맞춰서 작아진 新楮貨에 의해 조금씩 대체되어 갔다. 이즈음에 신저화와 구저화의 현황을 조사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당시 司瞻寺에서 보관하고 있던 신저화는 101,078장, 구저화는 3,722,903장이었다.¹⁴⁾ 또한 이보다 2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저화의 수량은 사섬시 3,185,952장, 경기도 31,634장, 충청도 446장, 황해도 3,179장, 강원도 12장, 전라도 57,894장, 평안도 50,886장, 경상도 126,345장, 함경도 3,383장, 개성부 9,677장¹⁵⁾으로 적지 않은 수량이 유통되고 있었다.

7) 유현재, 「조선 초기 화폐 유통의 과정과 그 성격 - 저화 유통을 중심으로 -」, 『朝鮮時代史學報』 49, 조선시대사학회, 2009, 75-83쪽.

8) 『太宗實錄』卷23, 太宗 12年 2月 壬辰, “戶曹判書韓尙敬, 啓造楮貨之法. 啓曰, 楮貨紙, 來自各道, 厚薄精麤不同, 市井之人, 但知樂用厚紙, 願於京中一處做得, 從之.”; 『太宗實錄』卷24, 太宗 12年 11月 壬辰, “且楮貨之紙, 各道分造以納, 故其厚薄不同, 揀擇之弊, 亦由此而生, 乞於京畿, 別置造紙所, 令司瞻一員監之, 使均厚薄, 命下政府議之.”

9) 『太宗實錄』卷30, 太宗 15年 7月 乙未, “戶曹請以前日議政府上納各道休紙, 造楮貨紙, 以減外方造紙之弊, 從之.”

10) 『太宗實錄』卷23, 太宗 12年 6月 壬申, “命政府曰, 楮貨擇善, 非特小民, 官家亦然, 自今禁擇新舊善惡厚薄強軟, 違者以教旨不從論罪.”

11) 『太宗實錄』卷30, 太宗 15年 7月 庚申, “置造紙所.”

12) 『文宗實錄』卷6, 文宗 1年 2月 庚午, “本國楮貨, 長廣太過, 其紙筭爲難. 一從中朝體制, 造板印之.”

13) 『大明會典』卷31, 庫藏2, 鈔法, “洪武八年, 令中書省, 造大明寶鈔. 取桑穰爲鈔料, 其制方高一尺, 闊六寸許, 以青色爲質, 外爲龍文花欄, 橫題其額曰大明通行寶鈔.”

14) 『成宗實錄』卷226, 成宗 20年 3月 乙亥, “今司瞻寺所藏新楮貨十萬一千七十八張, 舊楮貨三百七十二萬二千九百三張, 新貨遺在數小, 而舊貨多積, 將爲無用.”

하지만 전체적인 저화의 유통 수량은 많더라도 이를 매년 생산해야 하는 저화지의 수량으로 환산한다면 그렇게까지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지소 설치 이후 저화지 생산과 관련한 별다른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조지소의 설치 목적이었던 저화지의 厚薄과 精麤 문제를 크게 개선하여 통일된 紙品의 저화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저화지는 조선 전기에 있어서 종이 수요 증가의 큰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번 저화지를 만들면 해지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유통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며, 당시에는 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의 수량도 결코 많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으로 설명할 明에 대한 進獻紙는 그 사정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종이 진상 요구는 비단 조선 시대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 시대에도 元에서 종이를 요구한 기사가 몇 곳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100장, 500장, 1,000장과 같이 그 수요는 많지 않았다.¹⁶⁾ 13세기 원에서 10만 장의 종이를 요구한 기록은 있으나, 요구대로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¹⁷⁾ 14세기에도 佛經紙의 요구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그 수량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¹⁸⁾ 비록 중국에 진헌하기 위한 품목에 종이도 여러 공물과 함께 포함은 되었더라도 정작 그 수량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 종이 요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太宗朝부터였다. 일찍이 明 太宗(永樂帝)의 求紙에 대한 命으로 인해 1407년 純白紙 8천 장을 진헌하였고,¹⁹⁾ 그 이듬해에 다시 純白紙 1만 장을 진헌하였다.²⁰⁾ 같은 해에는 處女進獻이라는 말을 차마 쓰지 못해서 대신 紙劄進獻으로 하며 純白厚紙 6천 장을 진헌하였는데, 같은 『실록』 기사에는 이전에 이미 2만 1천 장의 종이를 진헌한 바 있다고 기록하였다.²¹⁾ 또한 明使 黃儼의 종이 요구는 아주 집요하였는데, 황제의 뜻으로 寫經紙 1만 장을 요구하거나²²⁾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1만 장의 종이를 가져간 기록이 있다.²³⁾ 세종 때는 純白厚紙 1만 8천 장과 純白次厚紙 7천 장을 진헌한 기록이 있고,²⁴⁾ 金銀의 歲貢을 면제하는 대신 厚紙 3만 5천 장을 진헌하였으며,²⁵⁾ 다시 2

15) 『太宗實錄』卷22, 太宗 10年 7月 甲午, “司贍寺時在楮貨三百八十八萬五千九百五十二張, 而各道會計付楮貨數考之, 則京畿三萬一千六百三十四張, 忠清道四百四十六張, 黃海道三千一百七十九張, 江原道十二張, 全羅道五萬七千八百九十四張, 平安道五萬八百八十六張, 慶尙道十二萬六千三百四十五張, 咸鏡道三千三百八十三張, 開城府九千六百七十七張.”

16) 金渭顯, 『麗·元間의 物貨交流考』, 『인문과학연구논총』 7, 명시대인문과학연구소, 1990, 53쪽.

17) 『高麗史』卷22, 世家22 高宗 8年 己未, “傳蒙古皇太弟鈞旨, 索獮皮一萬領, …〈中略〉… 紙十萬張, …〈下略〉.”

18) 『高麗史』卷33, 世家33 忠宣王 1年 辛巳, “元遣使來, 求佛經紙.”; 『高麗史』卷35, 世家35 忠肅王 8年 甲午, “前益城君洪淪奉勅, 來求藏經紙.”; 『高麗史』卷35, 世家35 忠肅王 後7年 丙辰, “元遣使, 來求佛經紙.”

19) 『太宗實錄』卷13, 太宗 7年 6月 庚戌, “遣南城君, 洪恕如京師, 謝賜鸚哥, 仍進純白紙八千張, 以帝曾有求紙之命也.”

20) 『太宗實錄』卷15, 太宗 8年 4月 壬寅, “遣工曹判書俊眉壽, 中軍總制沈仁鳳如京師. 謝賞賜也. 仍獻純白紙一萬張. 咨禮部曰, 永樂四年二月初八日, 承準來咨, 該公用紙劄事, 欽此, 除欽依外, 今再行移議政府, 揀選原抄造紙匠, 抄造到純白紙一萬張, 就差俊眉壽, 齎領送赴朝廷進呈.”

21) 『太宗實錄』卷16, 太宗 8年 11月 丙辰, “黃儼等以處女還京師, 上錢于慕華樓. 以藝文館大提學李文和爲進獻使, 齎純白厚紙陸千張赴京. …〈中略〉… 文和, 卽文命之兄也. 帝嘗求十分純潔光妍好細白紙于我, 已使安魯生洪恕使眉壽節次齎進二萬一千張. 至是, 上不欲名言奏進處女, 故使文和若齎進紙劄然.”

22) 『太宗實錄』卷22, 太宗 11年 8月 甲辰, “儼又宣帝旨曰, 將寫佛經, 送于西域, 宜進紙地. 上謂儼曰, 將進一萬張.”

23) 『太宗實錄』卷34, 太宗 17年 8月 丙戌, “禮曹佐郎金孝貞啓曰, 臣將後運各色紙, 到使臣館, 先告黃儼. 儼曰, 紙數過多, 爾通計前後總數一萬張, 其餘爾還齎去, 勿使海壽知.”

만 5천 장을 추가 진헌하였다.²⁶⁾

아마도 실제 수량은 『실록』의 기사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문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도 1407년부터 1424년까지 18년간 15만 장의 최고급 종이를 명에 진헌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²⁷⁾

太宗朝부터 명의 종이 요구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朝明의 빈번한 외교 활동으로 이전보다 더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추진되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교류 물품 중에 종이 유독 증가하게 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실록』에 의하면 明帝가 求紙의 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으며,²⁸⁾ 이때 요구했던 朝鮮紙는 십분 깨끗하고純潔, 빛이 고우며[光妍, 매우 가는[好細 백지(白紙)였다.²⁹⁾ 이는 명 초기 대구모 출판 인쇄 사업³⁰⁾ 등 종이 수요의 증가와 연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야말로 호사취미 등의 목적으로 고급 조선지를 선호하였던 것인지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명의 종이 요구에 대해 조선 조정의 진헌지 생산 방식은 경상도와 전라도 같이 주요 종이 산지에 생산량을 分定하는 것이었다. 1406년 3월 19일 明使 鄭昇의 白紙 요구에 대해서³¹⁾ 3월 24일 진헌 백지를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만들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³²⁾ 그 이듬해에는 진헌용 中幅紙를 충청도·강원도·경상도에 분정한 기록도 있다.³³⁾

명에 보낼 진헌지를 생산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408년 純白紙 1만 장을 진헌하며 조선 조정에서 명 禮部에 보낸 咨文에 의하면, 1406년 2월에 명에서 종이 1만 장의 요구가 있었고,³⁴⁾ 各道에 분정하여 1408년 1월에 진헌지 1만 장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³⁵⁾ 이를 통해 보면, 1만 장의 진헌지 생산을 위해 거의 2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423년 禮曹에서는 長興庫에 비치되어 있는 進獻用 表紙의 수량이 1,553권 밖에 없으니 下三道에 분정하여 1,500권을 추가 제작하여 진헌에 대비할 것을 啓達하였고 국왕은 이를 戶曹에 명하였다.³⁶⁾ 이에 호조는 예조의 關文에 의거하여 진헌을 위한 예비 종이 2,500권에 대한 할당량을 획정하여 계달하였고 국왕은 裁可

24) 『世宗實錄』卷3, 世宗 1年 2月 丙戌, “遣元閔生, 進獻純白厚紙一萬八千張, 純白次厚紙七千張, 火者二十名.”

25) 『世宗實錄』卷7, 世宗 2年 1月 甲子, “遣禮曹參判河演, 偕光祿少卿韓確如京師, 獻厚紙三萬五千張, 石燈盞一十事.”

26) 『世宗實錄』卷25, 世宗 6年 8月 庚申, “禮曹啓, 去庚子年進獻紙三萬五千張, 剩餘紙四百張, 今進獻紙二萬五千張, 剩餘紙三百二十張封奏, 從之.”

27) 종이 1卷은 20張의 낱장으로 환산된다(하혜정, 「종이 單位考」, 『東洋古典研究』 18, 동양고전학회, 2003, 213~214쪽; 陳仁誠, 「조선후기 冊紙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6, 50~51쪽).

28) 『太宗實錄』卷13, 太宗 7年 6月 庚戌, “遣南城君, 洪恕如京師, 謝賜鸚哥, 仍進純白紙八千張, 以帝曾有求紙之命也.”

29) 『太宗實錄』卷16, 太宗 8年 11月 丙辰, “帝嘗求十分純潔光妍好細白紙于我.”

30) 錢存訓(지), 김의정·김현용(역), 앞의 책, 2013, 275~277쪽.

31) 『太宗實錄』卷11, 太宗 6年 3月 己酉, “朝廷使臣內官鄭昇來, 以求純潔光妍好細白紙.”

32) 『太宗實錄』卷11, 太宗 6年 3月 甲寅, “令全羅慶尙二道, 抄造進獻白紙.”

33) 『太宗實錄』卷13, 太宗 7年 3月 己巳, “命忠清江原慶尙道, 抄造進獻中幅紙.”

34) 『太宗實錄』卷15, 太宗 8年 4月 壬寅, “遣工曹判書僕眉壽, 中軍總制沈仁鳳如京師. 謝賞賜也. 仍獻純白紙一萬張. 咨禮部曰, 永樂四年二月初八日, 承準來咨, 該公用紙笥事, 欽此, 除欵依外, 今再行移議政府, 揀選原抄造紙匠, 抄造到純白紙一萬張, 就差僕眉壽, 齎領送赴朝廷進呈.”

35) 『太宗實錄』卷15, 太宗 8年 1月 癸亥, “分命各道, 造進獻紙一萬張.”

36) 『世宗實錄』卷21, 世宗 5年 9月 庚寅, “禮曹啓, 長興庫見在進獻表紙, 只一千五百五十三卷, 請令下三道, 上品表紙一千五百卷加造預備. 且使臣所求易換紙, 亦不可臨時猝辦, 表紙搨鍊紙并一千卷, 乞於今年秋, 來年春秋, 漸次精造, 隨造輸納. 命下戶曹.”

하였다.³⁷⁾ 하삼도의 분정량에 대해서 이듬해인 1424년 5월 종이 8권이 들어갈 수 있는 규격화된 櫃子를 만들어서 7월 보름 이후에 來進하라는 傳旨가 내려졌다.³⁸⁾ 이에 대해 『실록』에는 충청도는 表紙 318卷과 搨鍊紙 201卷, 경상도는 表紙 444卷과 搨鍊紙 44卷으로 진헌지 진상 수량을 명기하고 있다.³⁹⁾ 충청도는 모두 4번에 걸쳐 진상한 수량이 318권으로, 이는 종이를 생산한 도회소가 4곳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충청도의 경우 애초 분정한 표지 500권과 도련지 300권 가운데 표지는 318권(63.6%), 도련지는 201권(67%)을 진상했고, 경상도의 경우도 표지는 800권 가운데 444권(55.5%)을, 도련지는 100권 가운데 44권(44%)만을 진상할 수 있었으니 어느 곳도 확정된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였다.

1424년까지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던 경상도는 그 이듬해인 1425년 표지 195권과 도련지 34권을 재차 진상하였지만,⁴⁰⁾ 같은 해 8월 호조에서 국왕에 계달한 문서에 2년 전 경상도에 분정한 표지 800권과 전라도에 분정한 표지 700권의 진상을 가을까지 완납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⁴¹⁾ 이미 지방에서 생산할 수 있는 진헌지의 한계 수량을 넘어서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고급의 진헌지를 다량 생산하는 것은 분명 부담되는 노역이었다. 이미 지방의 종이 생산량은 할당량을 감당할 수 없었고, 따라서 무리한 생산량 요구에 따른 폐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10년에는 公私書啓, 喪葬, 楮貨, 進獻의 용도로 사용할 종이 공급을 위해 楮田 확대를 司諫院에서 상소하고 있는데,⁴²⁾ 조정은 종이 생산의 어려움을 원료 확보의 시각에서 이해하였고 결과적으로 닳나무 식재 등 원료 확보에 정책을 집중하였다.

세종은 즉위 2년인 1420년, 이러한 진헌지 생산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애초 통일화된 楮貨紙 생산을 담당 하였던 조지소를 개편하면서 事大用 公文書와 진헌지 생산을 전담시킴으로써 製紙의 지방 분정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³⁾

그러나 조지소를 저하지 생산에서 진헌지 생산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결과가 나

37) 『世宗實錄』卷21, 世宗 5年 9月 癸巳, “戶曹據禮曹關啓, 進獻上品表紙一千五百卷, 易換中下品表紙, 上品搨鍊紙共一千卷, 摠二千五百卷. 乞將此數分定於全羅道上品表紙七百卷, 上品搨鍊紙一百卷, 慶尙道上品表紙八百卷, 上品搨鍊紙一百卷, 忠清道中品表紙三百卷, 下品表紙二百卷, 上品搨鍊紙三百卷. 所入白楮, 依辛丑年例, 以各道貢鹽及各官國庫陳米豆貿易, 造作上納. 從之.”

38) 『世宗實錄』卷24, 世宗 6年 5月 己丑, “傳旨忠清全羅慶尙道監司, 各其道內已造進獻紙, 依今下送長廣尺數作櫃子, 每一櫃八卷入盛, 來七月望後, 雨水詳審來進.”

39) 『世宗實錄』卷25, 世宗 6年 7月 庚子, “忠清道監司, 進進獻表紙九十六卷, 搨鍊紙四十八卷.”; 『世宗實錄』卷25, 世宗 6年 8月 丙午, “忠清道監司進, 進獻表紙八十八卷, 搨鍊紙七十二卷.”; 『世宗實錄』卷25, 世宗 6年 8月 戊申, “忠清道監司進, 進獻表紙八十卷, 搨鍊紙四十八卷.”; 『世宗實錄』卷25, 世宗 6年 8月 甲寅, “忠清道監司進, 進獻表紙五十四卷, 搨鍊紙三十三卷.”; 『世宗實錄』卷25, 世宗 6年 8月 丙寅, “慶尙道監司進, 進獻表紙四百四十四卷, 搨鍊紙四十四卷.”

40) 『世宗實錄』卷28, 世宗 7年 4月 癸亥, “慶尙道監司進, 進獻表紙一百九十五卷, 搨鍊紙三十四卷.”

41) 『世宗實錄』卷29, 世宗 7年 8月 丁亥, “戶曹啓, 長興庫見在進獻表紙, 只六百四十三卷, 請依前例, 慶尙道八百卷, 全羅道七百卷, 摠一千五百卷, 今秋等與來春等, 無弊造作上納. 從之.”

42) 『世宗實錄』卷20, 太宗 10年 10月 壬戌, “紙之爲用廣矣. 凡公私書啓, 大小喪葬, 莫不用之. 況今國家, 又以楮爲貨乎. 臣等竊見, 大小民家有楮田者, 百無一二, 而其僅有者, 又爲所在官司所奪, 利不及己, 而害且隨之, 故非惟不種, 或有斬刈而去之者, 是可歎也. 且上國以本朝之紙爲美, 或來求之, 是亦不可不慮也. 臣等願令各道, 大戶則二百條, 中戶一百條, 小戶五十條, 限來年二月, 一皆種之, 令監司差人考察, 有不依法者, 贖徵楮貨, 罪及守令, 曾有楮田, 不在此限.”

43) 『世宗實錄』卷148, 地理志 京都漢城府, “造紙所, 在壯義寺洞. 在先事大表箋奏啓咨文所用紙箔, 全羅道全州南原府歲貢之, 多不中用, 今上二年, 特命置所, 抄造工善支良, 紙品比舊甚精, 由是全南二府貢實之弊始除.”

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조지소의 업무 개편이 있었던 다음해인 1421년 承文院에 진헌지가 남아 있었던 까닭에 경상도와 전라도에 진헌지 진상을 임시로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을 보아도 지속적인 지방 분정 생산은 이어지고 있었다.⁴⁴⁾

조지소의 진헌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1426년부터는 조지소가 있었던 藏義洞에 닳나무를 재배하며 그 수요를 충당하였으나, 증대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듯 추가적인 닳나무 식재를 계달하고 있다.⁴⁵⁾ 고급 진헌지의 조지소 생산 체계는 기존의 지방 분정에 의한 貢紙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 처음에는 남원이나 전주보다 紙品이 떨어질 것을 염려했으나 오히려 지방 종이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정도까지 지품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⁴⁶⁾ 또한 조선 조정도 고급지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1년에 表紙 163권, 搨鍊紙 600권 정도를 절약하였으며,⁴⁷⁾ 불필요하게 고급지를 사용한 관료는 科罪하는 경우도 있었다.⁴⁸⁾

세종 때 조지소를 중심으로 재편된 진헌지 생산 방식은 文宗 즉위 이후 京中の 폐해를 줄인다는 명분하에 다시금 경상도와 전라도 중심의 지방 분정 생산 방식으로 변화하였다.⁴⁹⁾ 지방 분정 방식에 대해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⁵⁰⁾ 그 방식이 관철되었고 결과적으로 남원과 전주 지역의 폐해가 커짐에 따라 貢紙의 폐해를 줄여달라고 전라도관찰사가 국왕에게 계달하기까지 하였다.⁵¹⁾

이처럼 폐해가 컸던 진헌지 생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明의 진헌지 요구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더 이상 수천 혹은 수만 장의 진헌지 생산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선 太宗朝로부터 世宗朝에 이르기까지 종이 수요의 증가 원인은 무엇보다도 명에 대한 진헌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구하는 수량 자체부터 터무니없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上國에 진헌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최상품의 순수한 닳지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생산 비용은 산정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조선에서 생산할 수 있는 楮는 고갈되어 갔고 백

44) 『世宗實錄』卷12, 世宗 3年 5月 壬申, “以承文院所儲紙笥有剩餘, 權除慶尙全羅道所納紙笥.”

45) 『世宗實錄』卷42, 世宗 10年 12月 丙戌, “上林園啓, 本園自丙午年種楮于藏義洞, 以造進獻表箋紙, 然所植本少, 不足於用, 地且沙石, 非長久之計. 請於留後司破毀寺社基地, 及公處閑廣良田栽植, 并植諸般果木, 以資國用.”

46) 『世宗實錄』卷49, 世宗 12年 9月 己酉, “尹粹曰, 當新設紙造所, 皆以爲紙品必未及南原全州. 今紙造所紙品極高, 反不用南原全州之紙, 若設一司, 專治織造, 則亦必極善. 上曰, 新設紙造所時, 許稠以爲不可, 紙品之善, 今乃若是, 其議設織造司便否以啓.”

47) 『世宗實錄』卷79, 世宗 19年 11月 壬子, “議政府啓, 京外公私通用紙品過重, 今後赴試生名紙, 用搨鍊白奏紙, 新除各品堂參紙, 新監察及三館成衆官初謁名銜紙, 用白色常奏紙. 且各官所貢各司納表紙搨鍊紙搨鍊白奏紙, 除國用供計外, 並皆量減, 代用白奏紙. 從之. 於是長興軍減一年所納上品表紙五十三卷, 中品表紙一百一十卷, 上品搨鍊紙一百四十卷, 中品搨鍊紙四百六十卷.”

48) 『世宗實錄』卷101, 世宗 25年 8月 壬辰, “傳旨禮曹, 中外啓聞及各道膳狀, 皆用白奏紙, 不得用表紙, 載在六典. 今或用表紙, 或用搨鍊紙, 有違成法, 自今申明舉行, 違者科罪.”

49) 『文宗實錄』卷3, 文宗 卽位年 8月 辛丑, “論慶尙全羅道監司, 咨文表箋紙, 必用京中所造, 故搨鍊之弊甚巨, 欲使下三道, 分定造作, 以減京中之弊, 大抵造紙非難, 但曝之潔白, 搨之精熟而已. 今送模樣紙各一張, 看審盡心措置, 咨文表箋紙各一卷, 造作以進.”

50) 『文宗實錄』卷5, 文宗 卽位年 12月 甲戌, “承文院所納表箋咨文紙, 令下三道, 定爲都會所造之, 試其便否. 此以造紙所爲有弊, 而欲革之也. 然臣聞, 承文院納全州南原貢紙之時, 或有微瑕, 例皆却而不納. 其還退之紙, 不爲公用, 而改造之費, 實出民膏, 弊亦不貲. 若專恃外方, 而罷造紙所, 則恐有不及於用之弊, 仍舊爲便. 上曰, …(中略)… 令下三道, 造表箋咨文紙者, 姑欲試驗耳, 待其畢造而進, 其更啓之. 承文院所納紙, 雖或色惡, 或過於厚薄, 或搨鍊未熟, 或去荊未精, 令造紙所改造, 則猶可用也.”

51) 『文宗實錄』卷7, 文宗 1年 5月 庚子, “全羅道觀察使啓, 咨文紙奏聞紙及各司所納表紙搨鍊紙, 並分定南原全州等官, 收納, 其數很多. 因此楮木甚貴, 或散收民間, 民之受弊, 不貲. 請量減其數, 傳教承政院, 令磨勘以啓.”

성의 폐해는 심해져만 갔다. 조선 조정은 어떻게 해서든 닥의 생산을 늘려서 종이 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지만 추가적인 식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결국 倭楮의 도입도 이러한 원료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紙料의 다양화를 통한 配合紙 생산도 같은 목적에서 고안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Ⅲ. 冊紙 수요와 본격적인 配合紙 생산

다음으로 冊紙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앞서 진헌지 생산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종이 수요가 감소하였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世宗朝에 있어서는 국내 소비 종이 수요도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의 주요 원인은 책지였다.

조선 개국 이후 성리학에 기반한 국가 체제 정비 과정에서 書冊의 수요는 급증하였다. 금속활자 인쇄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가 주도의 대규모 문화 콘텐츠 및 서적 인쇄 사업은 국내 소비용 종이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켰다.

아직 太宗 재위 기간까지는 이렇다 할 책지 수요의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그나마 전하는 내용은 海印寺의 大藏經 인출을 위한 종이를 지방 분정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이다.⁵²⁾ 그만큼 태종 때까지는 대량의 책지가 소요되는 사업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세종 즉위 이후부터는 庚子字가 만들어지는 등 인쇄 효율의 증대와 서책 인출의 증가로 태종조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책지의 수요가 많아졌다. 1423년에는 『綱目續編』을 인출하기 위해 경상도에 1,500권, 전라도에 2,500권의 종이 진상을 명하였고,⁵³⁾ 같은 해 겨울에는 鑄字所에서 인출하기 위한 폭이 넓은 狀紙⁵⁴⁾를 충청도에서 400권, 경상도에서 900권, 전라도에서 700권을 상납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⁵⁾

1423년과 1424년은 앞서 설명한대로 진헌지의 지방 분정 생산으로 각 지방에서 무척 고초를 겪으며 그 수량을 감당하지 못하던 때였다. 진헌지도 충당하지 못하던 때에 책지까지 분정을 하였으니 과연 지방의 중

52) 『太宗實錄』卷25, 太宗 13年 3月 庚寅, “命印大藏經于海印寺. 傳旨于豐海京畿忠清道觀察使, 遞輸其道所造經紙二百六十七束于慶尙道. 又傳旨于慶尙道觀察使曰, 今遞輸經紙, 宜轉輸于海印寺, 印大藏經 其印出時諸緣及僧二百朔料, 並皆給之. 上以太祖好佛, 曾建開慶寺, 又印大藏經以安之也.”

53) 『世宗實錄』卷19, 世宗 5年 2月 丙辰, “下旨于戶曹. 予欲令鑄字所印綱目續編, 其令慶尙道冊紙一千五百卷, 全羅道二千五百卷, 以國庫米換民間楮, 造作上進.”

54) 조선 전기에는 紙品을 크게 3종류로 구분하였다. 가장 상품의 종이는 表紙, 그 다음은 奏紙, 일상의 종이는 狀紙라고 하였다. 그 사이사이에 上品이나 中品, 白이나 常과 같이 품질을 나타내는 글자를 덧붙여 세분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선 초기의 紙品은 삼단계의 구분 방식이 주요하였다(『太宗實錄』卷14, 1407年 10月 甲辰, “紙地之品, 以寫表箋而謂之表紙, 寫奏聞而謂之奏紙, 寫書狀而謂之狀紙. 今也不分名實, 中外公私, 皆用厚紙, 以致製造之際, 民受其弊, 故歲在辛巳, 已下禁令, 然因仍未革, 弊復如前. 矧今又有朝廷之需, 製造之費, 什倍前日, 不加禁抑, 恐或不繼. 自今除內用國用外, 啓聞等, 皆用白奏紙, 相通呈狀, 用常奏紙, 關牒公私書狀, 通用常奏紙狀紙, 以革前弊, 違者糾理.”).

55) 『世宗實錄』卷22, 世宗 5年 11月 甲申, “傳旨于戶曹. 鑄字所印冊廣狀紙, 忠清道四百卷, 慶尙道九百卷, 全羅道七百卷, 各以其道倉庫米豆, 換易白楮, 造作上納.”

이 생산력이 이를 감당하였는지 의문이다.

1424년 8월 조지소에서는 竹葉·松葉·蒿節·蒲節의 4종류 책지 406貼을 만들어 주자소에 보냈고,⁵⁶⁾ 같은 해 11월에는 蒿節⁵⁷⁾ 208첩과 松葉 22첩을 다시 주자소로 보냈다.⁵⁸⁾ 당시 극심했던 종이 생산량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지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제지 방식을 고안하였던 것이다. 製紙를 위한 다양한 紙料를 시험하였던 것은 특히 楮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제지를 위한 기술의 개량보다는 원료 다각화를 통한 원료 확보의 방식으로 생산력 확대를 추진하였던 점이 특징적이다.

조지소의 종이 생산력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책지의 지방 분정 생산은 계속되었다. 1425년 1월에는 『史記』 인출을 위한 책지를 충청·전라·경상도에 분정하였고,⁵⁹⁾ 같은 해 10월에는 四書五經과 『性理大全』 인출을 위해 충청도에 3,000貼, 전라도에 4,000貼, 경상도에 6,000貼의 종이를 분정하였다.⁶⁰⁾

세종 연간에 책지 수요가 가장 많았던 때는 『資治通鑑訓義』를 인출할 1434년 무렵이었다. 세종은 修己治心の 공부를 위해 즉위 초기부터 『資治通鑑綱目』에 큰 관심을 가졌다. 즉위 2년부터 經筵에서 『자치통감강목』을 講筵하였고,⁶¹⁾ 같은 해 겨울에는 庚子字로 이 책의 인출을 명하기도 하였다.⁶²⁾ 그러나 난해한 『자치통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자,⁶³⁾ 세종은 集賢殿을 중심으로 『資治通鑑』과 『자치통감강목』에 대한 訓義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⁶⁴⁾

1434년 6월부터 『자치통감』의 훈의 사업은 세종과 집현전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이듬해 6월 비로소 훈의가 완성되었으며,⁶⁵⁾ 그 책의 이름을 『자치통감훈의』로 하였다.⁶⁶⁾

세종은 『자치통감훈의』를 완성하고 그 즈음에 새로 주조한 甲寅字로 5~6백 권을 인출하고자 하였다.⁶⁷⁾ 그러나 방대한 『자치통감훈의』를 인출하기 위한 30만 권의 종이가 문제였다. 인출의 명이 있었던 그 다음날 세종은 종이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56) 『世宗實錄』卷25, 世宗 6年 8月 甲辰, “紙造所進以竹葉松葉蒿節蒲節四色冊紙, 共四百六貼, 下鑄字所.”

57) 蒿節은 문자 그대로라면 ‘호질’, 곧 속대를 가리키는 반면 藁精은 짚을 가리킨다. 당시 종이 원료로 속을 사용했던 것인지 아니면 짚을 사용했던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다.

58) 『世宗實錄』卷26, 世宗 6年 11月 乙未, “紙造所進新造蒿節紙二百八貼松葉紙二十二貼, 命下鑄字所.”

59) 『世宗實錄』卷27, 世宗 7年 1月 乙未, “傳旨忠淸全羅慶尙道監司曰, 欲印馬遷史頒布, 其冊紙, 以公物買楮, 造作上送.”

60) 『世宗實錄』卷30, 世宗 7年 10月 庚辰, “傳旨忠淸全羅慶尙道監司, 欲印性理大全五經四書, 其冊紙給價換楮, 忠淸道三千帖, 全羅道四千帖, 慶尙道六千帖, 造作以進.”

61) 『世宗實錄』卷7, 世宗 2年 閏1月 庚午, “經筵始講, 綱目通鑑.”

62) 『世宗實錄』卷11, 世宗 3年 3月 丙戌, “命印資治通鑑綱目. 令集賢殿正其謬誤, 自庚子冬至壬寅冬乃訖.”

63) 『世宗實錄』卷22, 世宗 5年 12月 庚午, “通鑑綱目講畢. 上謂同知經筵事尹准曰, 真西山云, 通鑑綱目卷帙多, 人主未易盡覽. 予自庚子年始講, 以至於今, 其間或有讀至三十餘遍, 或有二十餘遍, 誠未易盡看之書也.”

64) 『世宗實錄』卷64, 世宗 16年 6月 辛未, “召中樞院事尹准, 禮曹左參判權蹈, 集賢殿副提學俛循等, 會于集賢殿, 考閱資治通鑑, 其文義難曉之節, 參究源委輯覽釋義, 以至於諸書, 撰其所解, 逐節附之, 名之曰通鑑訓義.”

65) 『世宗實錄』卷68, 世宗 17年 6月 戊申, “上卽位之三年庚子, 始置集賢殿于禁中, 妙選一時文學之士, 備顧問掌誦校, 日引經輶, 講論經史. 歲甲寅七月, 以司馬公資治通鑑, 史學之淵源, 而諸家訓註, 詳略不同, 難於編考, 乃於是殿, 召會文臣, 取諸家之註, 兼廣閱書傳, 參而校之, 附於通鑑本文, 名曰訓義.”

66) 현재의 고서 목록이나 연구 논문 등에는 『資治通鑑思政殿訓義』로 쓰기도 한다.

67) 『世宗實錄』卷65, 世宗 16年 7月 辛卯, “上曰, 今鑄大字, 爲寶重矣. 予欲印資治通鑑, 頒諸中外, 使老人易於觀覽, 若備紙三十萬卷, 則可印五六百件矣. 其紙墨備辦之策, 承政院布置.”

『자치통감』을 인출할 종이 5만 권은 조지소, 10만 5천 권은 경상도, 7만 8천 권은 전라도, 3만 3천 5백 권은 충청도, 3만 3천 5백 권은 강원도, 합하여 30만 권을 만들라고 명하시고, 傳旨하시기를, “楮는 國庫의 米로 교환하여 확보하고, 京內의 僧人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하되, 衣服과 飲食을 주고, 蒿節·麩麥節·竹皮·麻骨 등은 확보하기 쉬운 물건이므로, 이것 5분마다 楮 1분을 섞어서 종이를 만들면, 紙力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책을 인출하기에 적합하고, 楮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⁶⁸⁾

세종이 30만 권의 종이 생산을 위해 하달한 이 기록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전체 30만 권에 대한 분정 생산의 비율이다. 10만 5천 권을 생산하는 경상도가 전체 생산량의 35%를 담당하고, 그 다음으로 전라도, 조지소, 충청도, 강원도 순서로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지소가 전체 생산량의 17%를 담당하고 있다. 조지소의 역할이 처음에는 균일한 품질의 저화지 생산에서 明에 대한 進獻紙 생산으로 확대 되고, 世宗朝에는 상당한 수량의 冊紙까지 제작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國庫의 米로 楮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楮가 많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蒿節·麩麥節·竹皮·麻骨 등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5:1의 비율로 楮와 배합하여 만든 配合紙를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 주목된다.

현재 전하고 있는 초주갑인자본 『자치통감훈의』를 분석하면, 상당히 이질적인 다양한 紙料의 종어로 책을 만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1).



〈사진 1〉 다양한 紙料로 인출한 『資治通鑑訓義』의 부분(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책지 제작을 포함하여 당시 종이 생산에서 가장 큰 현안은 지방 분정에 의한 생산 방식이었다. 1446년에는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종이를 진상해야 했던 지방 분정 생산 방식의 폐지를 요청하는 상소가 있기도 하였다.⁶⁹⁾ 이러한 논의는 계속 이어졌는데, 1450년 문종즉위년에 다음과 같은 상소가 있었다.

68) 『世宗實錄』卷65, 世宗 16年 7月 壬辰, “命造印資治通鑑紙五萬卷于造紙所, 十萬五千卷于慶尙道, 七萬八千卷于全羅道, 三萬三千五百卷于忠清道, 三萬三千五百卷于江原道, 共三十萬卷. 仍傳旨, 楮以國庫米換易, 役境內僧人, 給與衣糧, 如蒿節麩麥節竹皮麻骨等物, 因其易備, 每五分交楮一分造之. 非惟紙力稍強, 合於印冊, 用楮亦不多矣.”

전 현감 이운경이 상소하기를, “外方에서 進上하는 冊紙는 都會所를 설치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楮와 軍人을 各官에 分定하고는 都會所에 모아서 여러 달 立役시키니, 부자 형제가 糧食을 가지고 와서 立役을 交代하므로 왕래하는 어려움이 매우 큼니다. 신은 원컨대, 진상 책지를 京中의 造紙所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 各品이 受賜하는 책지는 5~6년을 기한으로 감면하여 民生을 쉬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⁷⁰⁾

이 기록을 통해 당시 지방 분정을 통한 도회소 생산 방식과 그 폐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조지소를 통한 책지 생산이었다. 이운경의 상소에 대해 議政府는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세종 때 확립된 책지의 지방 분정 생산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 생산량을 반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정부의 의견에 따라 최종적인 국왕의 결정 사항이 禮曹에 하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예조에 傳旨 하시기를, “앞서 1년에 進上하는 各色 冊紙는 경상도에서 6천 5백 권, 전라도에서 4천 5백 권,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각 2천 권이었다. 지금부터 매년 경상도에서는 麩節紙·柳木紙 각 2천 권, 전라도에서는 蒿精紙·柳木紙 각 2천 권, 충청도에서는 麻骨紙 1천 권, 강원도에서는 柳木紙 1천 권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모두 蠲減하라”고 하셨다.⁷¹⁾

이 내용은 매년 지방 분정하는 책지의 수량과 지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450년 이전	1450년 이후	
	수량(卷)	수량(卷)	紙料
경상도	6,500	2,000	麩節紙
		2,000	柳木紙
전라도	4,500	2,000	蒿精紙
		2,000	柳木紙
충청도	2,000	1,000	麻骨紙
강원도	2,000	1,000	柳木紙
합계	15,000	10,000	

69) 『世宗實錄』卷112, 世宗 28年 4月 丁卯, “司諫院右司諫卞孝敬等上疏曰, …(中略)… 一, 各道所造冊紙, 雖令春秋兩等造納, 然其各道未易充納, 鳩聚農民, 連續役使, 不無防農廢業之嘆, 姑令停之.”
 70) 『文宗實錄』卷4, 文宗 卽位年 10月 庚辰, “前縣監李云卿上書曰, 外方進上冊紙, 設都會所造之, 其楮與軍人, 分定各官, 聚於都會所, 累月立役, 父子兄弟, 齋糧代立, 往來艱甚. 臣願, 進上冊紙, 令京中造紙所造之, 各品受賜冊紙, 限五六年蠲減, 以歇民生.”
 71) 『文宗實錄』卷4, 文宗 卽位年 10月 庚辰, “乃下傳旨于禮曹曰, 前此一年, 進上各色冊紙, 慶尙道六千五百卷, 全羅道四千五百卷, 忠清江原道各二千卷. 自今每年, 慶尙道進麩節柳木紙各二千卷, 全羅道蒿精柳木紙各二千卷, 忠清道麻骨紙一千卷, 江原道柳木紙一千卷, 其餘皆蠲減.”

매년 지방 분정으로 충당했던 책지의 수량 1만 5천권은 저화지나 진현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량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많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 분정에 의한 생산을 추진했지만, 이조차도 여의치 않아 본격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紙料에 의한 종이 생산을 규정하기까지 이르게 된다. 경상도는 麩節紙·柳木紙, 전라도는 蒿精紙·柳木紙, 충청도는 麻骨紙, 강원도는 柳木紙가 이에 해당된다. 1424년에 조지소에서 처음으로 竹葉·松葉·蒿節·蒲節로 종이를 만들었고, 1434년에는 蒿節·麩麥節·竹皮·麻骨로 바뀌었으며, 1450년에는 蒿精·麩節·麻骨·柳木으로 다시 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成倪(1439~1504)의 『慵齋叢話』에는 다양한 지료 사용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세종께서 造紙署를 설치하여 表箋紙와 咨文紙 제작을 감독하게 하시고, 또 서적을 인출하는 여러 종류의 종이를 만드셨으니 그 품종이 한 가지가 아니었다. 蒿精紙·柳葉紙·柳木紙·薏苡紙·麻骨紙·純倭紙가 모두 매우 정밀하여 인출한 서적도 좋았다. 지금은 다만 蒿精紙와 柳木紙만 있을 뿐이다. 咨文紙·表箋紙도 옛날같이 정밀하지 못하다.⁷²⁾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15세기 중엽 이후부터 책지는 사실상 配合紙로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순수한 楮를 사용했던 고급 進獻紙의 수요가 급증하였던 것과 함께 甲寅字를 정점으로 하는 인쇄 효율의 발달과 집현전 등의 학술 연구 기관에 의한 서적 콘텐츠 개발에 의한 결과였다.

鑄字跋과 같은 문헌 기록을 참고하여 당시 금속활자의 인쇄 효율을 보면, 癸未字는 3~4紙, 庚子字는 20紙, 甲寅字는 40紙를 하루에 인출할 수 있었다.⁷³⁾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1434년의 갑인자는 1403년의 계미자에 비해서 약 10배의 인쇄 효율이 있었다. 비록 불완전한 통계 자료라고 할지라도 불과 30년 사이에 인쇄 효율의 발전에 의해서 10배 정도 책지 수요가 증가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종은 이와 같은 종이 수요 급증을 紙料 다양화를 통한 배합지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배합지의 전통은 고려 시대부터도 이미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기록상에 확인되는 것은 世宗代 『資治通鑑訓義』를 갑인자로 인출할 때부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蒿節·麩麥節·竹皮·麻骨 등의 配合紙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甲寅字本 『資治通鑑訓義』의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⁷⁴⁾

IV. 종이 配合과 倭紙, 雜草紙

지금까지 종이 수요와 공급 양상을 楮貨紙, 進獻紙, 冊紙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종이 수요 증가

72) 成倪, 『慵齋叢話』 卷10, “世宗設造紙署, 監造表箋咨文紙, 又造印書諸色紙, 其品不一, 有蒿精紙柳葉紙柳木紙薏苡紙麻骨紙純倭紙, 皆極其精, 所印書籍亦好, 今則只有蒿精柳木兩紙而已, 咨文表箋之紙, 亦不類昔之精也.”

73) 천혜봉,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범우사, 2013, 78~96쪽.

74) 鄭善英은 『자치통감훈의』의 紙料를 楮, 竹, 雁皮로 분석하고 있는데, 『세종실록』에는 『자치통감훈의』의 紙料를 蒿節·麩麥節·竹皮·麻骨과 楮의 配合紙로 기록하고 있다. 실제 분석의 결과는 문헌 기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鄭善英, 앞의 논문, 1986, 208쪽).

에 대응하였던 양상은 비단 종이 원료를 중심으로 한 配合紙 생산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製紙 기술 자체에 대한 개량에도 관심을 두고 이웃한 중국과 일본에 사신을 보내면서 그 기술을 傳習하게 하였다. 『실록』에는 제지 기술의 도입에 대한 내용, 특히 중국의 제지 기술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⁷⁵⁾ 하지만 중국의 제지 기술이 조선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 체제의 획기적인 변모를 기대할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웃한 나라에서 제지 기술을 전습하는 정책은 제지 공급량 확대에 크게 공헌하지는 못한 것 같다.

비슷한 목적으로 일본에도 製紙 기술의 전습을 위한 사신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世宗의 倭紙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종이 수요가 급증하였던 1427년, 세종은 內庫에 있던 왜지 959帖을 주자소에 보내서 『資治通鑑綱目』을 인출하였다.⁷⁶⁾ 내고의 왜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입수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때 세종은 왜지를 ‘단단하고 질기대[堅韌]’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통신사가 일본에 갈 때 그 제지 방법을 배워오도록 명하였다.⁷⁷⁾ 그 이듬해 일본에 新主가 嗣位한 것을 賀禮하고 그 前主의 致祭를 위하는 명분으로 파견된 통신사의 正使였던 朴瑞生은 세종의 명을 받들어 일본의 造紙 방식을 조사하였고,⁷⁸⁾ 귀국 후 일본의 조지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⁷⁹⁾

이때 박서생이 보고한 일본 조지법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 이듬해 對馬島로 사람을 보내서 倭楮를 구해오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서,⁸⁰⁾ 박서생은 왜제라는 원료에 주목해서 일본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마도에서 왜제를 구해온 이후 처음에는 일본과 환경이 비슷한 곳을 골라 1434년 경상도 동래와 강화도에 종자를 심어서 관리하였고,⁸¹⁾ 6년이 지난 1439년에는 충청도·경상도·전라도에 나누어 심도록 하였는데,⁸²⁾ 왜지 제작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447년까지도 왜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명하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⁸³⁾

75) 柳鐸一, 앞의 논문, 1990, 30~34쪽 참조.

76) 『世宗實錄』卷38, 世宗 9年 11月 丁亥. 庚子字 『자치통감강목』은 11행 21자의 「經筵」인이 적혀있는 四周雙邊本과 11행 22자의 四周單邊本이 있다. 사주쌍변본의 경우는 1428년에 쓴 발문이 있으므로 간행 연도는 1428년 이후로 비정할 수 있다(박광현, 「湖林博物館 所藏 金屬活字本の 現況과 價値」, 『書誌學研究』 56, 한국서지학회, 2013, 124~128쪽). 필자는 경자자 사주쌍변본 『자치통감강목』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늘고 촘촘한 발초수(箕目), 2cm 이하의 좁은 발끈폭(糸目幅), 2장을 겹친 듯한 2중의 발끈, 섬유는 2mm 정도로 짧게 절단되었고, 가볍게 도침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얇으면서도 견실한 朝鮮紙의 특징이 확인된다(종이 조사는 富山大學 富田正弘 名譽教授의 敎示가 있었다).

77) 『世宗實錄』卷41, 世宗 10年 7月 辛亥, “上謂代言等曰, …(中略)… 且倭紙堅韌, 造作之法, 亦宜傳習.”

78) 『世宗實錄』卷42, 世宗 10年 12月 甲申, “日本通信使大司成朴瑞生, 副使大護軍李藝, 書狀官前副校理金克柔發行, 賀新主嗣位, 致祭前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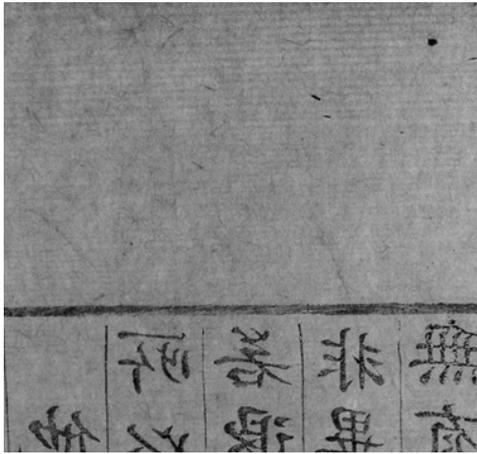
79) 『世宗實錄』卷46, 世宗 11年 12月 乙亥, “朴瑞生又具啓, 日本深中青, 鍍銀, 造紙, 朱紅, 輕粉之法, 皆留之.”

80) 『世宗實錄』卷49, 世宗 12年 8月 丁酉, “傳旨禮曹, 遣人于對馬島, 求得造冊紙倭楮以來.”

81) 『世宗實錄』卷65, 世宗 16年 8月 丁未, “傳旨禮曹, 慶尙道東萊縣及京畿江華, 栽植倭楮, 未有考察培養之條, 恐將絕種, 令監司每年夏秋, 開具榮枯之狀以聞.”

82) 『世宗實錄』卷84, 世宗 21年 1月 壬辰, “造紙所啓, 江華所種倭楮之實, 請於海氣相連忠清道泰安, 全羅道珍島, 慶尙道南海河東分種. 從之.”

83) 『世宗實錄』卷118, 世宗 29年 10月 戊寅, “示全羅忠清慶尙道監司. 倭楮種, 曾令沿邊州郡栽植培養, 或絕種, 或不茂盛, 是必不用心之故也. 今送倭楮種於沿邊各官, 園圃海氣相通之地, 栽種培養, 出苗生長之狀, 隨卽申達.”



〈사진 2〉 倭楮로 인출한 갑인자본 『法華經』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왜저에 대한 집중적인 식재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 관련해서 주목되는 자료가 1450년 甲寅字로 인출한 『法華經』이다. 金守溫의 跋文에 의하면, 世子(훗날 文宗)의 瘡疾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왜저로 종이를 만들어서 『법화경』과 『화엄경』을 각각 33부씩 인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⁸⁴⁾ 이처럼 세종 연간에는 조선에 식재한 왜저로 만든 종이 일부 시범적으로 고급 책지에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2).

조선 전기에 왜지는 전체 종이 수요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世祖朝 때 印經紙 조달과 관련한 『搨印節目』에 의하면 왜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할 수 있다.⁸⁵⁾ 純倭紙와 交倭紙가 모두 25,888貼인데, 전체 411,694貼에 대해서 대략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세조 때 대장경 인출 사업에 소요된 종이 사용량의 6~7%는 왜지가 차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世宗朝 때부터 시작된 왜저 식재 정책은 일단 어느 정도 성공적인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倭楮紙라는 이름으로 여타의 종지와 종류를 따로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닥과 왜닥의 생장이나 楮皮 소출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며, 조선닥에 비해서 왜닥이 원료 확보 등에 더 유리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당시 기록을 보면, 倭紙는 純倭紙와 交倭紙로 구분되고 있다. 純倭紙는 다른 재료를 섞지 않은 순수한 왜저지를, 交倭紙는 다른 재료를 섞어서 만든 配合 왜저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실록』 등에 楮와 다른 재료를 ‘섞는다’ 또는 ‘배합한다’는 의미의 한자로 ‘交’字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으며, 당시 配合紙는 보편적인 제지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雜草紙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세종조 때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紙料 다양화 정책은 상당 부분 성공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료 다양화를 통한 종이 생산력 증대는 서책 인출과 進獻紙 충당과 같은 國用的 종이 수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종이 생산에 동원되었던 백성의 고초를 덜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였다.

배합지 생산에 대한 자신감이 고조되었을 즈음 잡초지가 나타나게 된다. 잡초지도 사실상의 배합지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배합지가 나름의 제지 시험을 거쳐서 楮와 일정한 배합을 한 양질의 종이였던 것에 비해서 잡초지는 구체적인 지료를 알 수 없는 草節木皮와 楮가 배합되었던 종이였다.⁸⁶⁾ 다시 말해서 잡초지는

84) 『妙法蓮華經』(甲寅字本) 卷5, 跋文, “作倭楮紙印華嚴法華各三十三部, 華嚴則木板, 法華則鑄字.”

85) 吳龍燮, 「『搨印節目』으로 본 世祖年間 大藏經 印出」, 『書誌學研究』 30, 한국서지학회, 2005, 328~332쪽.

86) 『端宗實錄』 卷11, 端宗 2年 6月 壬寅, “議政府據戶曹呈啓. 我國產楮處小, 而京外所用紙, 皆收楮於民間, 弊甚不費. 今用草節

楮와 배합되는 지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고급 종이 생산을 억제하여 민폐를 줄이려고 하였던 노력의 결과였다.⁸⁷⁾ 심지어 조선 조정은 민폐를 더 줄이기 위해 종이 생산 단계에서 蠟灰를 쓰는 공정 까지도 단축시키면서 종이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하였다.⁸⁸⁾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는 품질이 매우 나빴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잡초지를 사용하니 사람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하였다.’(初用雜草紙 人多以爲難)는 『실록』 기사에서 잡초지의 품질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폐를 줄이겠다는 조정의 입장은 확고하여 世祖는 司憲府에 傳旨하여 잡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고급 닥종이를 사용하는 관원에 대한 탄핵을 지시하였다.⁸⁹⁾

당시 잡초지는 冊紙는 물론이고 啓本을 포함한 京外文書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나 잡초지 정책을 확고히 수행하던 世祖가 승하하고 睿宗과 成宗이 그 뒤를 이으면서 잡초지 사용의 폐해를 문제 삼는 의견이 조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⁹⁰⁾ 비록 폭넓게 극대화된 다양한 지료 선택과 일부 제지 공정의 간소화를 통해 민폐는 줄였을지언정 잡초지로 만든 문서는 사실상 내구성이 없었던 것이 큰 문제였다. 쉽게 잔결되거나(易致殘缺) 찢어지고 탈락되는(多至裂破脫落)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이후 잡초지에 관한 기록은 『실록』에서 자취를 감춘다. 아마도 이 이후 잡초지는 더 이상 다량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잡초지는 분명 배합지 전통을 이으면서 백성의 민폐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종이임에 틀림없다. 배합지는 다량의 국내 소비용 책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世宗朝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졌고, 世祖朝인 15세기 중엽 잡초지를 최고 정점으로 지료 다양화가 가장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V. 결 론

조선 초기 종이 수요를 이끌었던 것은 楮貨紙, 進獻紙, 冊紙였다. 저화지의 경우는 조지소를 설치하여 그 간 문제시 되었던 저화의 厚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된 규격의 화폐를 만들 수 있었다. 조지소 설치 이후부터 저화지는 큰 무리 없이 생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과 명의 외교 관계 과정에서 진헌지의 수요가 태종과 세종 연간에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때 상당수의 진헌지는 지방 분정의 생산 방

木皮一斤, 和楮皮三兩爲紙, 亦可用. 請自今不得已用楮紙外, 常時所用, 竝用雜草紙. 從之.”

87) 『世祖實錄』卷8, 世祖 3年 8月 乙巳, “諭慶尙道觀察使李克培曰, 用雜草紙者, 欲除民弊也, 今見八道啓本, 紙厚且廣, 無亦反成弊耶, 又謂造作不慣, 抑民未知和耶, 卿自來熟知予心. 今後勿用厚紙, 又詳達民心好惡便否.”

88) 『世祖實錄』卷10, 世祖 3年 12月 壬寅, “諭慶尙道觀察使李克培曰, 國家欲用雜草紙者, 以其易辦, 本爲除弊, 且造紙時, 不用蠟灰, 今卿云, 須用蠟灰 乃可造. 有乖立法本意. 卿更將會降諭書曲盡布置, 不要精厚, 務使易造, 期於興用.”

89) 『世祖實錄』卷13, 世祖 4年 7月 戊申, “傳旨憲府曰, 初用雜草紙, 人多以爲難. 然明知畢竟除弊, 民受其惠, 故強而不弛. 今聞民間果受其利, 今既數年, 定限非一度, 而官吏猶不奉法, 公然用楮紙, 殊無令出惟行之意, 爾憲府一無舉劾者, 以爲能勝其任乎, 自今大學彈劾.”

90) 『睿宗實錄』卷8, 睿宗 1年 10月 甲寅, “吏曹正郎裴孟厚啓, 凡京外文書, 皆用雜草紙, 易致殘缺, 無從後考, 請傳久可考文書, 用楮紙.”; 『成宗實錄』卷34, 成宗 4年 9月 辛亥, “又啓本皆雜草紙, 多至裂破脫落, 無頭無尾, 間有塗擦洗濯處, 因此奸吏聽人請屬, 冒濫追書, 至有事露受罪者.”

식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지방에서 생산할 수 있는 종이 생산량을 이미 초과하였고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지소에서 진현지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저화지나 진현지보다 더욱 많은 수량으로 상시적인 수요가 있었던 것은 책지였다. 책지는 상대적으로 지품이 낮아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수요량은 다른 종이에 비해 바가 아니었다. 세종은 진현지를 생산했던 조지소를 통해 다양한 책지 생산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책지를 만드는 紙料에 주목하였다.

세종은 이미 1420년대부터 지료의 다양화 방법에 대해 연구하여 竹葉·松葉·蒿節·蒲節 등의 원료로 서책 인출을 시험하였다. 世宗朝의 지료 다양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1434년 인출한 『자치통감훈의』부터이다. 무려 600만 장의 종이 필요했던 『자치통감훈의』 인출에는 蒿節·麩麥節·竹皮·麻骨을 楮와 5:1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 配合紙가 사용되었다. 이후에도 조선 조정은 종이 생산력 확대와 백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료 다양화 방법을 고민하였고, 1450년대에는 수요가 많았던 책지를 지방의 특성에 맞는 蒿精紙·麩節紙·麻骨紙·柳木紙 등의 배합지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전체 종이 수요의 6% 내외를 차지했던 倭紙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배합지 생산은 종이 품질을 극도로 낮춘 世祖연간의 雜草紙로 가장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高麗가 불교 중심의 국가였고 부처의 가피와 成佛을 위한 功德의 개념으로 종이 생산을 이해할 수 있다면, 紙品은 상당히 좋았을지 몰라도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朝鮮이 유교 중심으로 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서적 출간을 대중화와 敎化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면, 지품은 많이 떨어졌을지라도 생산량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 중심의 시대에서 유교 중심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을 대략 세종연간으로 설정한다면, 이때 종이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종이의 대량 생산 체제가 절박하게 요구되었을 것이다.

조선은 어떤 방식으로 종이 생산량 확대를 도모하였을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크게 製紙 기술과 紙料에서 그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새로운 제지 기술을 찾기 위해 중국이나 일본 등에 사람을 보냈으나 그 결과는 그렇게 신통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실상 그때까지도 제지 기술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동소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으로 관심을 돌린 분야는 紙料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楮와 같은 종이 원료만 충분하다면 인력에 의한 종이 생산량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식재를 통한 楮의 생산량 확대는 한계가 있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지료의 개발로 선회하게 되었으며, 그 산출물이 蒿精紙나 柳木紙와 같은 配合紙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高麗圖經』, 『高麗史』, 『大明會典』, 『法華經』(甲寅字本), 『慵齋叢話』, 『資治通鑑訓義』, 『朝鮮王朝實錄』

2. 단행본

김삼기, 『조선시대 제지수공업 연구』, 민속원, 2006.

錢存訓(저), 김의정·김현용(역), 『중국의 종이와 인쇄의 문화사(中國紙和印刷文化史)』,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천혜봉,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범우사, 2013.

3. 논문

金渭顯, 「麗·元間の 物貨交流考」, 『인문과학연구논총』 7, 1990.

柳鐸一, 「15世紀 韓中 造紙技術에 對하여」, 『季刊書誌學報』 2, 1990.

李光麟, 「李朝初期의 製紙業」, 『歷史學報』 10, 1958.

박광현, 「湖林博物館 所藏 金屬活字本の 現況과 價値」, 『書誌學研究』 56, 2013.

吳龍燮, 「『搨印節目』으로 본 世祖年間 大藏經 印出」, 『書誌學研究』 30, 2005.

유현재, 「조선 초기 화폐 유통의 과정과 그 성격 - 저화 유통을 중심으로 -」, 『朝鮮時代史學報』 49, 2009.

鄭善英, 「朝鮮初期 冊紙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1, 1986.

陳仁誠, 「조선후기 冊紙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6.

富田正弘, 「中世文書の料紙形態の歴史的變遷を考ふる」, 『歷博』 184, 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14.

河宗睦, 「제지업」, 『한국사』 24, 2013.

하혜정, 「종이 單位考」, 『東洋古典研究』 18, 2003.

* 이 논문은 2016년 11월 22일에 투고되어,
2016년 12월 6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12월 2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2월 30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Raw Materials of Paper and the Production of Mixed Paper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Park, Junho*

This paper studies raw materials used for the production of paper and their relation to paper deman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Paper demand in early Joseon dynasty increased dramatically due to several factors. *Jinheon-ji*, a paper tribute to Ming Dynasty, and *Chaek-ji*, paper used for book publishing, were two major causes.

The demand for *Jinheon-ji* increased dramatically during the reigns of King Taejong (r.1400~1418) and King Sejong(r.1418~1450). The Joseon dynasty allocated the amount of paper each province needed to produce, however, this amount tended to exceed each province's production ability. Also, the demand for *Chaek-ji* was much higher than for *Jinheon-ji*. Even though the relative low quality of *Chaek-ji* compared to *Jinheon-ji* was acceptable, the demand of it highly surpassed the demand of other papers.

Increasing the quantity of paper inevitably caused the hardships for people in the Joseon dynasty. During this time, they tried to find a way to increase the supply of paper while reducing negative influence on people. The production of mixed papers through the diverse use of raw materials was one of the solutions.

King Sejong considered several possibilities to expand the supply of paper through *Jojiso* (Office of paper manufacturing); he also paid close attention to the raw materials used for making *Chaek-ji*. During the 1420s, King Sejong took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of diversifying raw materials used for paper production and made ordained several trials of books published using various materials such as bamboo leaves, pine tree leaves, and rice straws.

The diversity of paper raw materials can be found in *Jachitonggam hunui* (an explanatory book on *Jachitonggam*), which was published in 1434. Mixed paper made from rice straws and mulberry trees in five to one ratios was used there. Joseon dynasty consistently investigated several ways to make different mixed papers in an effort to expand production power and ease

* Curator, National Hangeul Museum

the burden of the people. In the 1450s, the dynasty allowed each province to make their own mixed papers for *Chaek-ji* based on customs of the region to fulfill the demand. The production of *Japcho-ji* (a type of paper made of weeds) during King Sejo's reign was the lowest quality paper produced until that time, and can be seen as the peak of their efforts to produce mixed paper.

[Key Words] Raw materials of Paper(지료, 紙料), Mixed Papers(배합지, 配合紙), a paper tribute to Ming Dynasty(진헌지, 進獻紙), paper used for book publishing(책지, 冊紙), a type of paper made of weeds(잡초지, 雜草紙), Korean paper(한지, 韓紙), paper(종이, 紙)